

유니트론텍, '뉴빌리티'와 손잡고 '2024 로보월드' 참가

- ▶ 자체개발 AI컴퓨팅 솔루션 URC100, MoveOn, UAM100 등 첫 공개
- ▶ 로봇 전문기업 '뉴빌리티'와 협업, 자율주행 로봇 '뉴비' 시연

<2024-10-23> 주식회사 유니트론텍이 23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로보월드'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로봇산업 전시회 '2024 로보월드'는 300개 업체가 900개 부스를 구성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유니트론텍이 로봇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설명: 23일부터 나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로보월드'에 열린 유니트론텍 부스. /사진제공=유니트론텍

유니트론텍은 이번 로보월드에서 자체개발 솔루션인 AI 컴퓨팅 플랫폼 'URC100', 'MoveOn SODIMM', 'UAM100' 모듈, 'SAD(Suspicious Action Detection) 알고리즘'을 선보인다.



사진설명: 유니트론텍이 '2024 로보월드'에서 선보인 자체개발 솔루션인 AI 컴퓨팅 플랫폼 URC100과 SAD 알고리즘 시연 /사진제공=유니트론텍

'URC100'은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을 위한 고성능 AI 컴퓨팅 플랫폼으로, 퀄컴(Qualcomm)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기반으로 한 'URC100QT'와 엔비디아 AP를 기반으로 한 'URC100NT'의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된다.

두 버전 모두 고성능 AP, 카메라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 탑재해 다양한 센서와 알고리즘을 처리를 통해 인지, 판단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4K 영상 처리와 무선통신 기능을 지원해 로봇틱스 자율주행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MoveOn SODIMM’은 퀄컴의 최신 칩셋이 적용된 AI컴퓨팅 모듈로, 높은 사양과 고속 연산을 요구하는 로봇틱스, AI 박스, 스마트 팩토리과 같은 다양한 AI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엔비디아의 칩셋과 호환되도록 설계해 기존 메인보드의 회로 변경 없이 메인 칩셋을 쉽게 변경 가능하며, 개발 비용 절감과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UAM100’ 모듈은 초저전력 아날로그 AI 머신러닝 프로세서인 미국 아스피니티(Aspinity)의 AML100 칩셋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이 모듈은 차량의 ‘문콕’이나 스크래치와 같은 미세한 충격을 감지하고 이를 차량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SAD 알고리즘’은 차량 주변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사전에 감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AI 시큐리티 솔루션이다.



사진설명: 유니트론텍이 로봇 전문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해 '2024 로보월드'에서 시연한 자율주행 로봇 '뉴비'. /사진제공=유니트론텍

전시회 현장에서는 로봇 전문기업 '뉴빌리티'와 협업하여 자율주행 로봇 '뉴비'를 시연한다. '뉴비'는 카메라 센서를 통해 경로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스스로 주행하는 기술을 자랑한다. 양사는 지난달 자율주행 로봇용 컴퓨팅 플랫폼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제품 개발과 검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유니트론텍의 기술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는 평이 나왔다.

유니트론텍 관계자는 “우리의 솔루션은 고성능, 신뢰성, 확장성을 겸비해 다양한 로봇, 자율주행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라며 “특히 자율주행, 로봇틱스, 농기계,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ITS),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그 활용도가 높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유니트론텍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AI가 적용된 로봇, 모빌리티 분야에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

다. 유니트론텍 관계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걸친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말했다.